

고품질로 승부하는 인도의 차(Tea)산업

방콕사무소

기록적 증가를 보이는 차 생산량

-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차 생산국이다. 2017~18년의 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6% 증가한 약 13억kg으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수출 역시 2억5,700만 kg으로 전년과 비교할때 13% 증가했다.
- 그동안 아삼주의 아삼차는 인도 전체 차 생산의 절반인 51%를 생산했으며, 서벵골주가 29.9%, 타밀나두주가 12.4% 그리고 7.3%가 기타 지역에서 생산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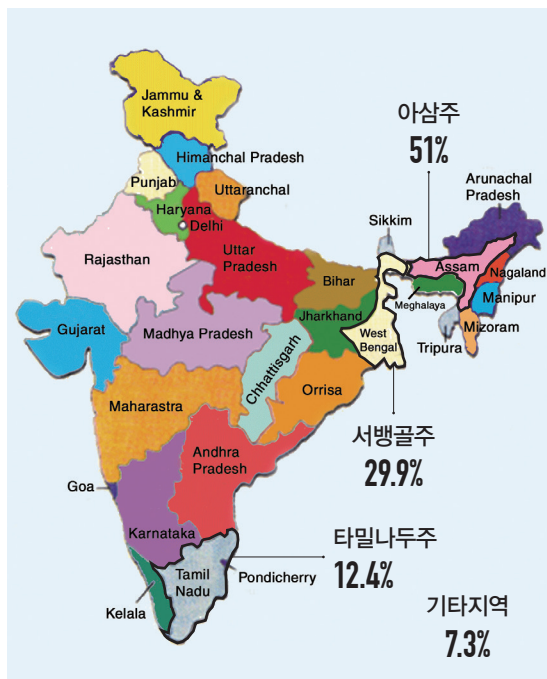
인도의 차 생산 및 수출량 추이

(단위 : 톤(t))

년도	생산량	수출량
2013~14	1,208,800	225,800
2014~15	1,197,200	199,100
2015~16	1,233,100	232,900
2016~17	1,250,500	227,600
2017~18	1,325,100	256,600

출처 : Tea Board of India

인도 전체 차 생산량 현황



높은 인건비와 정체된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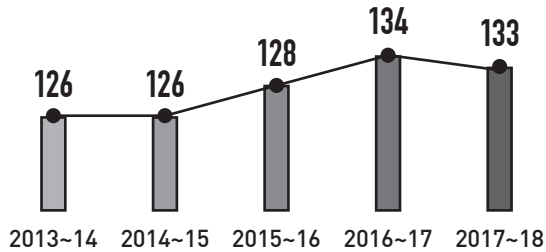
-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문제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.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의 차 생산비용은 10년 동안 2배나 증가했지만, 지난 5년 동안 가격은 kg당 125~132루피(약 1,970~2,060원)에 머물러 있고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여 생산원가의 2/3를 차지하고 있다.
- 2016년 인도는 세계 차의 1/4을 생산했지만, 전체 수출액에서 인도차(Tea)가 차지하는 부분은 1/10에 불과했다. 이는 거대한 내수시장만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한 결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전통 생산법보다는 과립으로 판매되는 CTC공법*을 고수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.

* CTC공법 : Crush, Tear, Curl의 약자로, 찻잎을 기계로 자르고 찢고 말아서 제조하는 방식

출처 : www.toptourguide.com

인도차시장의 가격추이

(단위 : 루피/kg)



출처 : Euromonitor International

- 전통 차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잎을 수확해야 하고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 CTC 방식보다 약 15% 더 비싸다. 아삼의 전통차는 kg당 평균 가격이 500루피(약 7,815원)로 CTC의 방식 차의 약 2배이며, 최고급 다즐링(Darjeeling)¹⁾ 전통 차 가격은 아삼(Assam)²⁾ 전통 차의 3배이다. 하지만 인도는 아직 스리랑카의 딜마(Dilmah)³⁾와 같은 브랜드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.

- 1) 다즐링(Darjeeling) : 인도 다즐링 마을 일대 (서벵골주)에서 생산되는 홍차, 세계 3대 홍차
- 2) 아삼(Assam) : 인도 아삼주에서 만든 홍차
- 3) 딜마(Dilmah) : 스리랑카에서 나는 최고급 찻잎 홍차 브랜드, 세계 3대 브랜드 중 하나임

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고급화 전략

- 『Euromonitor』에 따르면 인도 브랜드제품 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.2%이다. 인도의 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TeaBox, Vahdam Teas, Tea Trunk, Namhah와 같은 벤처기업에서는 프리미엄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차 제품

을 온·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. 또한, 현대식 커피숍의 출현으로 차카페(Tea-Bar)에서 차를 즐기는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.



벤처기업 TeaBox의 차 제품

-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출현으로 인도 차 산업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지만, 여전히 많은 부분이 과거의 전통방식에 머물러있다. 따라서 인도시장에서 차업체들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프리미엄 제품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.

녹차 및 프리미엄차 시장의 성장을 기대

- 하지만 인도 홍차는 여전히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녹차 및 허브차 시장의 확대도 기대된다. 『Euromonitor』에 따르면 녹차시장은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% 성장했다.
- 또한, 프랜차이즈 차카페(Tea-Bar)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, 고급차도 즐기게 될 것이다. 다양화되고 있는 인도 차시장에 한국의 녹차뿐 아니라 다른 차들의 진출도 기대해볼 만하다. 예를 들어 티마스터가 선별한 고품질의 유기농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마감한 프리미엄 차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.

출처 : economictimes.indiatimes.com, www.teabox.com